



일러스트레이터 김도연

인간과 하천

5

River & Culture



김정현 | 동화작가
(kimskorean@naver.com)

하천과 동화

우릴 좀 살려줘

‘을 여름에 왜 이리 가뭄이 심하노?’

마을 사람들은 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심하다는 것은 비가 계속 안 내리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름에는 하늘에서 비가 수시로 내려야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 걱정을 덜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심어놓은 벼랑, 밭에 심어놓은 무 배추 고추들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앞에 펼쳐져 있는 논에는 아직 이삭을 내지 못한 벼들이 누우런 빛을 띠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논바닥의 물이

말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가 내리기를 매일매일 속으로 빌고 있습니다. 가뭄 때 눈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저수지의 물조차 바닥을 보일 지경이기도 하여 더욱 더욱 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철에는 원래 비가 자주 내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시냇물도 불어나고, 강물도 많아 농사가 잘되고 물 속 온갖 물고기도 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철은 덥습니다. 덥기 때문에 우리는 이따금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이 아니라 산에 사는 짐승들도 그러합니다. 하늘

을 낚는 새들도 그러했습니다.

마을 근처 산자락에서 흘러 내려오는 시냇물은 언제나 풍부하였는데 이번 가뭄에는 역시 바다에 드러날 만큼 적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풀밭에서 놀던 참개구리 형제가 물방울 형제를 만났습니다.

물방울 형제는 그 때 아침 햇살을 쬐며 뽀뽀뽀 빛나고 있었습니다.

참개구리는 말했습니다.

“우릴 좀 살려 줘. 개울에 물이 없어 곧 태어날 우리 동생들이 말라 죽을 지경이야.”

참개구리의 동생들은 올챙이들을 말한 것입니다. 개구리들은 물에서 알을 낳으면 그 알이 자라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또 자라면 개구리가 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동생들을 많이 낳아서 올챙이까지 되도록 있었는데 지금 그 올챙이 동생들은 개울물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서 죽을까 봐 떨고 있어.”

“죽을까 봐 떨고 있구나?”

물방울 형제는 함께 반문하였습니다.

“그건 말이야, 한시라도 물이 없으면 못 살기 때문이야. 우리처럼 다 자랐을 때는 물에만 있지 않고 물 밖으로 나와 땅 위에서 지내며 살 수 있지만 올챙이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야. 늘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는 거다.”

“그렇구나. 그럼 저 개울물이 말라 버리면 올챙이 동생들은 다 죽겠구나.”

“그래서 좀 살려 달라는 거야. 넌 하늘에 엄마 아빠가 있어서 비를 내려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 엄마 아빠에게 비 좀 내려 달라고 얘기 해 보란 말이야.”

참개구리 형제의 말을 들은 물방울 형제는 ‘거 참 큰일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정심까지 들었습니다.

그 무렵에 어데선가 물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풀밭에 앉았습니다. 참개구리 형제가 있는 근방이었습니다.

참개구리 형제는 물까마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움찔하였습니다. 겁이 난 것입니다. 물까마귀한테 잡혀 먹힐까 하여

겁이 난 것이었습니다.

물까마귀는 풀밭에 돌아다니는 곤충이나 개울에 사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우리가 흔히 산자락이나 들에서 보는 까마귀를 닮은 새입니다.

물까마귀는 풀밭을 잠시 살펴보다니만 “에잇, 여긴 맛있는 것만 있구나.”하고 혼자말로 중얼거리고 나서는 개울로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래야 맛있는 게 많지. 마침 물이 적어 좋다. 요놈의 꼬라미들 이젠 나한테 잘 잡히겠지, 히히히...”

물까마귀는 개울가로 다가가서는 혼잣말을 하며 히죽거렸습니다.

개울의 물은 물까마귀가 걸어 다닐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개울에서 사는 여러 물고기는 물길 따라 제대로 헤엄도 못 쳐가고 고여 있는 물에만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데서 물까마귀와 물오리는 쉽게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하였습니다.

물이 많아야 물고기들은 쉽게 달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 깊이 들어가 있으면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잡혀 먹힐 위험도 덜 한 것입니다.

참개구리는 물까마귀가 풀밭을 뒤적이지 않고 개울가로 간 것에 참 다행이다 하고 안심을 하였는데 한편 걱정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함께 물속에서 놀던 물고기 친구들이 물까마귀한테 잡혀 먹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방울아, 제발 비 좀 오게 부탁해 응?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하늘나라에서 비를 안 내려주면 여기 사는 모든 게 다 죽고 만다. 저 풀이랑, 저 나무랑, 모두 말이다. 사람도 죽지.”

함께 있는 다른 참개구리가 말 하였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그 잎사귀도 죽을 거야. 그럼 넌 누구하고 놀지? 지금 봐. 너 친구도 목말라 누렇게 떠서 시들시들해지고 있지 않아?”

이 말에 물방울 형제는 잎사귀들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참개구리가 말한 대로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것을 알



일러스트레이터 김도연

있습니다.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게 보이는 소나무도 시들고 있는 듯 누르스름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물방울 형제는 함께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방울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가 없으면 이 세상에 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예쁜 구슬 같은 물방울을 만들어내지요. 물이 많으면 물방울은 곳곳에 있게 되지요. 실은 물방울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은 바로 가뭄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물방울 형제는 결심하였습니다. 우리 하늘나라로 가서 엄마 아빠한테 부탁하여 꼭 비를 내리도록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물방울 형제들의 결심과 함께 참개구리들은 함창하듯 (개

굴개굴) 큰 소리 내어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저 만큼 떨어져 있는 참나무에서는 청개구리들이 모여 울어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물방울형제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데로 갔을까요?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수증기가 되어 짹짹한 햇볕을 헤치고 엄마 아빠가 있는 하늘나라로 올라 간 것이었습니다. 비를 좀 내려 달라고 부탁하러 간 것이겠지요?

물방울 형제가 사라진 후 얼마 안 있어서였습니다. 하늘은 갑자기 시꺼먼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참개구리와 청개구리의 울음소리는 높아 갔습니다. 함창소리 같기도 하였습니다. 이 소리에 장단맞추기라도 하듯 점차로 세차게 비는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